

육아용품, 이제 중고거래로 이용하세요~

소중한 아이를 위해 사주고 싶은 물건은 많지만 매년 새 제품을 사주자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내 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춰 일일이 새 물건을 사들인다고 생각해보자. 대충 어림잡아도 ‘헉’ 소리가 날 만큼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이런 엄마들의 마음을 어찌 알았는지 요즘에는 육아용품 중고구매 사이트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아직도 이 가게 저 가게를 돌아보며 가격 비교에 여념이 없는 ‘육아맘’들을 위한 알뜰 중고구매 정보를 모아봤다.

글_편집실



합리적인 소비로 이어지는 중고거래하기

최근 쇼핑 트렌드 중 하나가 ‘알뜰’이라는 키워드다. 합리적인 소비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중고거래다.

안전한 중고거래는 신뢰도 높은 사이트에서

인터넷에서 중고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에는 사진을 비롯해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새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잘못 선택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 50% 이상

할인된 것은 너무 낡았거나 중고거래가 여러 차례 된 것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거래의 경우 반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안심이 되지 않는다면 많은 엄마들이 사용해 신뢰도가 높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서울시 지정 아동의류 공유기업 ‘키플(www.kiple.net)’은 중고아기의류와 도서, 육아용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거나 무료나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필요성이 적어진 아기 육아용품들은 키플의 옷보내기 서비스를 통해 활용할 수 있다.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하게 이용하기

최근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쉽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물품거래의 비 건전성으로 인한 거래자간의 신용과 안전성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새것보다 새것 같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중고거래 앱, 이제부터 안전하게 이용하자.

사기정보 조회하기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http://cyberbureau.police.go.kr>)에 거래할 사람의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조회하면 해당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의 사기범죄 기록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중고거래 앱 자체에서 원하는 물건에 대한 '사기정보 조회' 버튼을 통해 최근 3개월 동안 접수된 민원이 없는지 확인해볼 수도 있다.

안전거래 이용하기 판매자가 돈을 받은 뒤 제품을 보내지 않거나 연락을 끊어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가 많은 만큼, 안전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중고거래 앱이 늘어나고 있다. 물건을 받지 못했거나 이상이 있을 시 신고를 하면 그 결제대금이 판매자에게 돌아가지 않으며, 소비자가 구매확정을 하면 판매자에게 금액이 송금되는 시스템으로 믿고 구매할 수 있다.

다 쓴 육아용품 기부로 나눔의 기쁨 누리기

나눔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중고 육아용품 기부는 비영리단체나 공익 기관에서 기증받은 물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름다운 가게 쓰지 않는 물건을 기증받아 매장에서 판매한다. 수익금은 국내외 소외 이웃을 돕는데 쓰인다. 기증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매장별로 기증받는 시간대가 다를 수 있으니 기증 시간과 운영일을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취급 품목은 홈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 확인하면 된다. 기부 영수증도 발급해주니 잊지말자.

문의 1577-1113, www.beautifulstore.org

서울시 녹색장난감도서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녹색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을 기부 받아 무료로 빌려주는 곳이다. 홈페이지에 장난감 사진을 등록하면 상태와 수요를 보고 기부 가능 여부를 알려준다. 장난감을 기부하면 그 상태에 따라 기부 포인트를 주는데, 5,000점 이상부터 장난감도서관 연회비나 양육 프로그램 수강비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 시민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연회비는 1만 원이다. 단, 미끄럼틀 등과 같이 부피가 큰 물품은 받지 않는다.

문의 02-753-0222~3, www.seoultoy.or.kr

TIP

유축기 대어는 각 지역 보건소에서!

유축기는 가격이 비싸지만 막상 사용기간은 짧기 때문에 구매가 고민되는 품목 중 하나. 이런 산모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각 지역 보건소에서는 출산 직후 필요한 유축기 무료 대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유축기를 대어하기 위해서는 관할 주소지에 해당하는 보건소에 3~4일 전 미리 연락해서 예약하면 된다.

